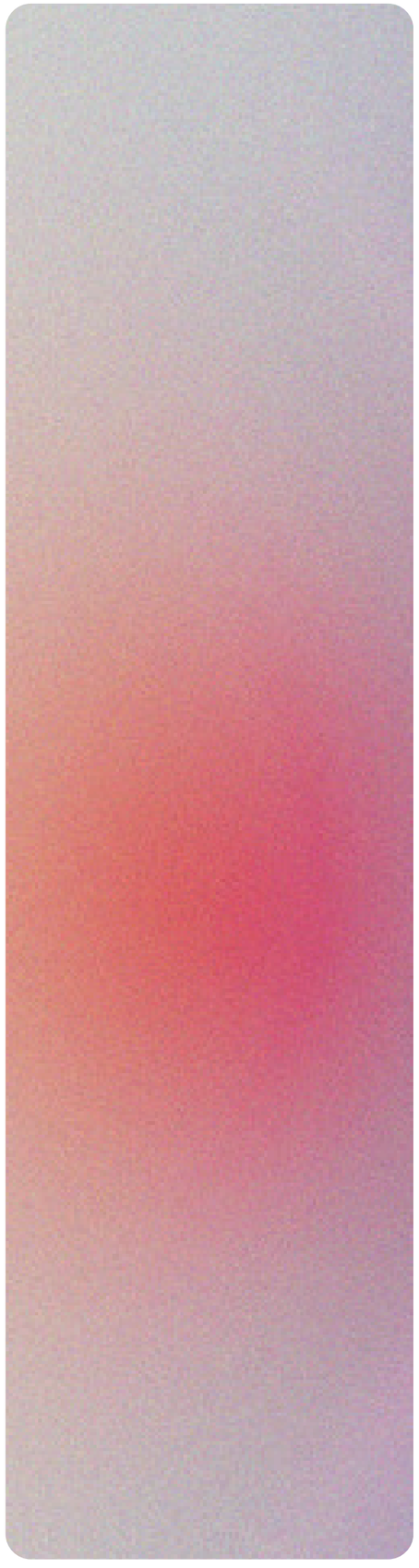
2026-1



예그리나 제32호

ЕГРИНА

발 행 제성훈
편 집 조현준(박사과정 2학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E L 02-2173-2556
홈페이지 ruscis.hufs.ac.kr

목차

러시아-CIS학과 소개 3

I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6

II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재학생 현황 18
신입생 소개 28
개설강의 소개 32

III 원우 수기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38

IV 학과 관련 정보
학술 동정 50
2026-1 교수진 91
졸업생 취업 현황 94

러시아-CIS학과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1996년 교육부 선정 국책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기원은 1970년 국내 대학원 최초로 개설된 '동구지역연구학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학과는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 국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학과명을 변경해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러시아·CIS학과'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CIS학과는 러시아를 비롯한 탈소비에트 지역의 15개 독립국을 대상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문화 등 다층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 연구를 심화하며,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CIS 지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러시아와 탈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역학 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전문적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 속에서 러시아·CIS학과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적 탐구의 장에 발을 디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통찰하고 그 이면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 학과가 지닌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가치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Транссибирская магистраль)

I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날짜	연사	강의내용
2025년 9월 5일	Шин Агриппина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идентичность, лидерство и вклад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2025년 9월 12일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2025년 9월 19일	이인영 국회의원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
		대학원생과의 대화
2025년 10월 17일	주장환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유라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
2025년 11월 14일	장우현 러시아연기예술연구소 소장	러시아 연기예술의 세계
		일상에서 만나는 연기예술
2025년 11월 21일	강규은 한국외대 특임교수	대학원생을 위한 러시아어 공부방법
		한러 통번역의 세계
2025년 11월 28일	연담린 한신대 연구교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 관계
		러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
2025년 12월 5일	황수환 제주대 교수	북한의 대외전략과 북러 협력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2025년 12월 19일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제4차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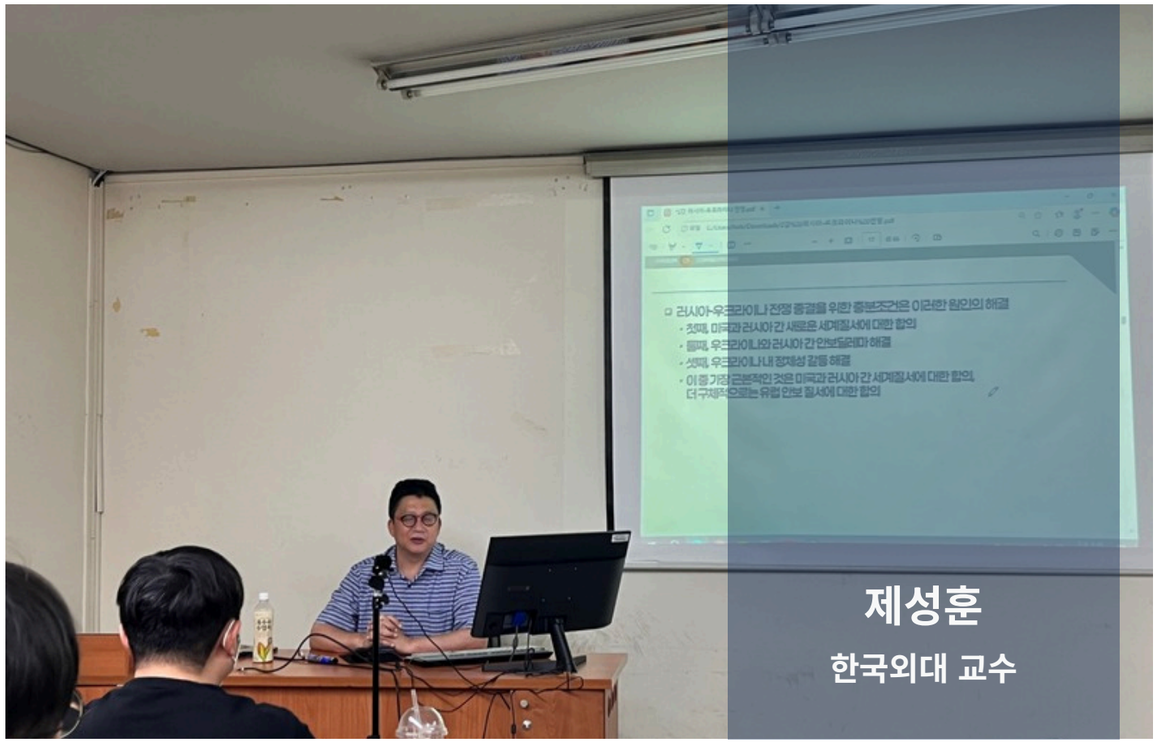


2025년 9월 5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1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아그리피나 신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은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идентичность, лидерство и вклад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о’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아그리피나 신 의원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연해주의 약 18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옮겨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1세대 고려인들이 농업 발전에 기여해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후대는 교육을 통해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사는 고려인들이 전통과 언어를 지키면서도 우즈베크 사회에 통합된 과정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융합 모델”이라 소개했다. 또한 다민족 국가에서의 시민 정체성은 공동체를 넘어 국가 전체를 위해 기여하려는 책임과 연대라고 강조하며, 여성과 소수민족의 성장 가능성을 본인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민족의 영혼”이라 정의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자기 정체성 이해, 타자에 대한 개방성, 사회 통합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9월 12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2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제성훈(한국외대)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는 제1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제2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제성훈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압박을 받아왔고,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전쟁을 시작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 ‘비군사화’와 ‘비나치화’였으나, 실제로는 서방 세력의 영향력 차단과 흑해 전략 요충지 확보에 있었다. 나아가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군사적/외교적 갈등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충돌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전쟁 장기화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대외 전략이 맞물리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 속에 놓여 있음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분쟁과 지정학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국은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이인영
국회의원, 전 통일부 장관

2025년 9월 19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3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이인영(전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은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인영 의원은 강연에서 '왜 다시 평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쟁 방지, 전략적 사고, 미래지향성을 평화 논의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연사는 한반도가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어 전쟁 위험이 상존하며, 핵 확전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 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보유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하면서, 핵 보유는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한국은 재래식 전력 우위를 활용해 '핵 대 비핵' 구도 속에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는 평화를 통한 성장, 즉 평화경제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남북 경제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분석에 따르면 약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베트남 사례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북한 변화의 강요보다 점진적 협력을 통한 '3불 원칙'(붕괴 불원·흡수 반대·인위적 통일 배제)을 강조하며 단계적 평화통일을 제안했다. 강연이 끝나고 연사와 학생들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연사는 진보와 보수의 통일관 간극을 좁히고 상호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통일 지향적 정책의 유지가 남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주장환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2025년 10월 17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5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주장환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소장은 제1강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이념형간의 대응과 사례', 제2강 '유라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제1강에서는 엘리트 변수 중심의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주장환 소장은 기존의 단순한 엘리트 분류가 정치 엘리트의 복합성과 동태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 정치 엘리트를 통합과 분화의 정도, 순환의 범위와 방식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엘리트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정치 엘리트의 교체와 상호작용이 체제 변동과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2강에서는 유라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연사는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중심에 두고, 미시·거시 분석과 행위자·구조 이원론을 통합한 동태적 연구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행위자의 선택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현상을 열린 결론의 관점에서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 엘리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유라시아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사는 사회과학자의 역할은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데 있다고 이를 위해 과학철학적 성찰, 미시적·거시적 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정치 엘리트 연구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든 모든 사회과학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11월 14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7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장우현 러시아연기예술연구소 소장은 제1강 '러시아 연기예술의 세계', 제2강 '일상에서 만나는 연기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우현 소장은 이론적 설명보다 심리적 치유와 실용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제1강을 시작했다. 연사는 국내 배우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러시아 연극기법과 상담심리를 융합한 독창적인 치료 방식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서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초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법 정립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슈킨 연극학교의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통해 연기예술과 상담의 접점을 발견했음을 언급하며, 과도한 긴장과 이완, 동결 상태의 원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 기술로 박스 호흡법과 코 호흡 습관화를 제시했다.

제2강에서 연사는 심상화, 역설적 이완법, EMDR, 체호프의 심장 에너지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이완·안정화 기법을 연기훈련과 상담심리에 접목하여 소개했다. 긴장 시 좁아지는 신체·공간감을 따뜻한 이미지로 전환하는 심상화 기법과 의도적 긴장 후의 반동을 이용하는 역설적 이완법이 심리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성 자극을 통해 부정적 기억에서 주의를 분리하는 EMDR의 원리와, 상상을 통해 신체와 감정을 조절하는 체호프의 기법이 상담 장면에서 갖는 유효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사는 삶에서 부정적 경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단단한 심리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11월 21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8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강규은 한국외대 노어과 특임강의교수는 제1강 '대학원생을 위한 러시아어 공부방법', 제2강 '한러 통번역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제1강에서 강규은 교수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어 학습의 효율적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사는 독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텍스트를 함께 읽고 번역한 뒤 토론하는 스터디 방식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어 실력은 양질의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읽고 인풋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향상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다.

텍스트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연사는 글 전체를 먼저 숙독한 후 각자가 문단을 나누어 번역하고, 단순한 오역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강조점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장 단위의 정확성보다 글 전체의 논지 구조, 핵심 개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용어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강에서는 통역과 번역의 본질적 차이와 각 통역 형태의 실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통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통역사의 직업윤리 및 자료 유출 방지의 중요성도 함께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 과정에서 맥락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눈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 학습과 반복적 경험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11월 28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9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연담린(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연구교수는 제1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 관계', 제2강 '러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연담린 교수는 국제질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틀과 동태적 분석모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오늘날 세계가 다극 체제를 넘어 '병렬 권역질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사는 미국(규범), 중국(제조·기술), 러시아(군사·에너지)가 각기 상이한 방식의 신제국주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교·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원 공급자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구조적 방어전으로 규정하며, 에너지 회랑과 희토류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맥락을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단순 독재가 아닌 실로비키, 실로바르히 등 엘리트 네트워크가 균형을 이루는 '집단지도체제(Politburo 2.0)'로 작동하며 통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사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 균형 유지와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2024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이후 변화된 안보 지형을 상세히 짚었다. 북러 협력이 우주·미사일·핵추진 기술 등 비대칭 전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러시아가 북중러 삼각체제를 공식화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사는 한국이 2025년 세계 6위권 국가로서 더 이상 미·중 패권 경쟁의 수동적 행위자가 아님을 역설했다. 에너지·기술·공급망의 구조적 변동 속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 미국, EU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내리고 능동적인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5년 2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5년 12월 5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제10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황수환(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1강 '북한의 대외전략과 북러 협력', 제2강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황수환 교수는 강의에서 북러 협력의 전략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가 단순한 국제적 고립 탈피를 넘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실익 확보, 나아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지향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이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북한이 군사 기술 축적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및 파병 문제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와 경제적 이익 확보라는 실질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북한이,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 이념을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 조치로 핵 무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외 담론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알타이 산맥 (Алтайские горы)

Ⅱ 2026학년도 1학기에는

- 재학생 현황
- 신입생 소개
- 개설 강의 소개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이혜나

출신학교
강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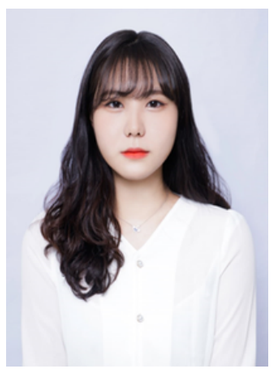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정치, 외교, 안보



장지호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북-러 관계



변경아

출신학교
경기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및 국제 교류

석사과정

장여진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정치 및 외교



박상진

출신학교
선문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및 정치



손민정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관심분야
개발협력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최재영

출신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정책 및 국방



Amirova Aisuluu

출신학교
오시기술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문화



서호수

출신학교
경희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투자 및 경제협력

석사과정

우제민

출신학교
극동연방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국제관계



박부병

출신학교
극동연방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정치 및 안보



황연수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대체 시장으로서의
중앙아시아와 경제 교류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채지은

출신학교
국민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정치 및 사회문화



최종원

출신학교
세종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자동차 산업



Abdurahimova Shukrona

출신학교
타지키스탄 사범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사회문화

석사과정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박사과정



김선아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우크라이나 지역학



김애리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러시아 외교 정책



문영일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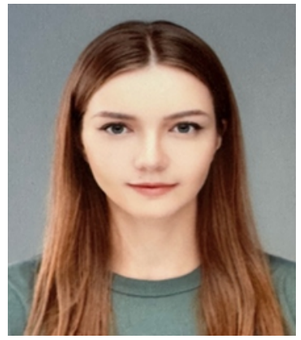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철도 분야

박사과정

Zagnibida Victoria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북-러 관계,
러시아 대 동북아 정책



Shin Nadezhda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관심분야
사회문화적 변화, 정체성, 이주



조현준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분쟁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박사과정



정재훈

출신학교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은행



Khairolla Gulzhanar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정치 및 경제

박사과정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김연우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경제구조 및 대외무역

자기소개 및 입학후 포부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김연우입니다.
키릴 문자에 대한 흥미를 계기로 노어과에 진학하여 러시아어를 학습하였고, 이후 국제통상학을 이중전공하며 국제법과 기초 경제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두 전공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대외무역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이어 경제분과로 입학하였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러시아어에 대한 흥미였지만, 학부를 지내고 진로를 탐색하며 언어 능력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공자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부를 계속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 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기존 무역 구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전략, 극동지역 개발, 북극횡단 복합운송회랑 구축 계획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규모 확대와 경제 협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공부한 두 전공을 연결하여 러시아와 CIS 지역의 무역 환경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향후 한-러 경제 협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연구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사과정



박성주

출신학교
국민대학교

관심분야
탈러시아화와 지역정세 변화

자기소개 및 입학후 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 1학기 신입생 박성주입니다.
학부 시절 러시아 유라시아의 정치와 사회 등 전반으로 학습하면서 부터 저는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의 정세와 변화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각국이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탈러시아화 현상은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한 주요 주제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국가 언어 정책과 사회 통합의 현실적 문제를 직접 목격하면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기능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저는 러시아·CIS 지역의 언어정책 및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은 중앙아시아였습니다. 이 지역은 발트 3국이나 캅카스 지역과 달리, 소련 시기 인위적으로 설정된 국경과 민족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다민족 사회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구조가 탈러시아화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복잡한 정치·사회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명목민족 중심의 국가 언어 보급 정책'과 러시아어의 위상 변화가 국가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열을 낳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가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통계 자료와 정책 문헌 분석을 통해 각국의 탈러시아화 정책이 사회 통합과 분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존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소련 국가 등지에서 진행되는 탈러시아화 정책은 단순한 정체성 정책을 넘어 지정학적·외교적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탈러시아화가 각국 사회의 통합 혹은 분열 유발하는 양상을 비교 연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저의 관심사인 탈러시아화와 지역정세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심화시켜, 탈러시아화 현상이 유라시아 지역 질서에 미치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서방 언론 중심의 시각을 넘어,러시아를 '대립의 대상으로서의 러시아'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익과 미래 전략을 논할 수 있는, 현실적 파트너로서의 러시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현재의 저이지만 교수님들의 지도를 통해 연구자로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NO PAIN, NO GAIN"은 제가 석사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의 저, 박성주가 되겠습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윤신혜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및 정치

자기소개 및 입학후 포부

안녕하십니까,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신입생 윤신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처음으로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제 진로 선택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학 전공으로 역시 러시아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재학 중에는 러시아 문화와 역사, 지역학 전반등 러시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정치학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며 국제 정치 이론과 정치사를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및 CIS 지역을 단순한 문화권이 아닌, 국제정치 질서 속 행위자로 분석하는 시각과 이론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 졸업논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국가 정체성과 담론이 안보 인식과 전쟁 정당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 정책과 대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물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과 정체성, 담론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러시아·CIS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교수진의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연구해보고자 본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선 기존에 학습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과 지역 안보환경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성실한 연구 태도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전혜림

출신학교
경기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사회문화

자기소개 및 입학후 포부

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신입생 전혜림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러시아어문전공에서 학부 과정을 이수하며 러시아에 대한 언어적·지역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학부 과정 중 러시아 인문지리 수업에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탐구하며, 국가 간 접경 공간이 단순한 경계선을 넘어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된다는 점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1년간의 기업 실무 현장을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에 건설 모듈러 기업인 ㈜플랜엠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제안으로 근무를 연장해 1년간 휴학하며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국가 간 협력과 정책 변화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국과의 관계를 언어적 이해를 넘어,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저는 북·중·러 접경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안보·자원 문제가 중첩되는 공간이 향후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한반도 주변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북극항로 활성화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기회 요인을 연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기업 근무 당시 현장을 통해 문제의식을 확장해 나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와 현실을 대조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개설 강의 소개

과목명	교수	소개
CIS국가체제연구	홍완석	본 교과목은 1991년 소련의 해체이후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독립국가연합(CIS)의 개별 국가체제와 CIS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역학관계를 한국적 시각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발트 3국도 본 연구에 포함시킨다.
러시아 예술과 문화비평	박선영	본 교과목은 러시아의 미술, 건축,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러시아 문화 예술의 미학적 전통과 비평적 사유를 탐색한다. 정교회 미학에서 비롯된 상징 체계와 공간 개념, 기호학적·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페테르부르크의 도시 건축, 근대 이후부터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소비에트 시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러시아 문화 예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주요 예술 작품의 감상과 분석을 통해 러시아 예술을 사회적 담론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문화 비평적 시각을 기르는 데 있다. ▸ 러시아 예술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 사조 및 미학적 흐름을 이해한다. ▸ 건축과 미술, 공연 예술(연극, 오페라, 발레)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미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예술 작품을 역사의 사회적·종교적·철학적 맥락 속에서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러시아 문화 예술을 통해 인간과 세계, ‘미’와 ‘진리’ 등에 대해 숙고한다.

과목명	교수	소개
러시아-CIS 특강	제성훈	This course is offered with the support of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part of the Academic Next-Generation Training Program. It invites lea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scholars on Russia and the CIS region, and aims to enhance stude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hrough practice- and experience-oriented lectures and discussions rather than purely theoretical approaches.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정치	김석환	In today's world, Russia's global power is overwhelmingly recognized in the military and energy sectors. Its nuclear-based military and related capabilities are formidable, a key reason why Russia remains regarded as a superpower. The same holds true for energy. As the global economy and security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big tech, including AI, energy and relat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re also receiving renewed scrutiny. Russia has solidified its status as an energy powerhouse in the traditional sense, while maintaining a strong competitive edge across the entire value chain, encompassing energy sources, power generation,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essential for the AI era, a symbol of new civilization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2026년 1학기 러시아-CIS학과 개설 강의 소개

과목명	교수	소개
유라시아국제관계 세미나	박정호	Этот курс предлагает углубленное изучение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и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евразийс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период изменен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В частности, курс направлен на углубление понимания внешне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и евразийс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 отношений в целом, а также на обсужд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для Южной Кореи.их последствий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중앙아시아경제세미나	조영관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as follows: First, to promo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entral Asian economy. Key topics include Central Asian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industrial structure, trade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relations with Russia,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cooperation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Second, to cultivate research methodology by analyzing research data using a variety of methodologies.

과목명	교수	소개
유라시아경제분석 세미나	염동호	본 강좌는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치·지정학적 변화와 이를 분석하는 정성 및 정량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한다.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라시아(Eurasia) 지역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역구조, 경제통합, 산업연관분석 등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해 다자간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및 전략 도출 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학술 페이퍼 작성 역량을 강화한다.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 연구	제성훈	Цель курса — сформировать у магистра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кафедры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понимание арк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и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바이칼 호수 (Озеро Байкал)

Ⅲ 원우 수기

-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김소연(정치학 박사)
- 김시헌(정치학 박사)
- 문승원(정치학 석사)
- 현지훈(경제학 석사)
- 김재명(경제학 석사)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박사과정 졸업

구조-행위자 모델에 따른 중소국 헤징 전략의 유형과 특징 : 2014년 이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비교 연구



김소연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국제관계,
러-중-중앙아시아 대외정책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박사 졸업생 김소연입니다. 처음 연구의 길에 들어서며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신입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시간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자, 인내를 배우며 연구자로서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지도교수님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가르침 덕분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연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이후 급변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도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에 부딪혀 막막할 때마다, 우리 학과에서 함께 수학하며 뜨겁게 토론했던 박사과정 동료들의 응원과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보내준 신뢰 덕분에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 당시, 귀감이 되는 선배 연구자분으로부터 들었던 '연구자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으로 통찰력을 제시해야한다.' 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연구에 임하되, 현상을 바라볼 때만큼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박사 연구 과정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온 이 문장은 앞으로 제가 연구자로서 지켜나갈 변함없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위 취득은 고된 배움의 과정을 무사히 이수했다는 마침표인 동시에,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과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한 선후배님들은 물론 새롭게 들어올 후학들과도 학문적 고민을 나누며 우리 학과만의 소중한 연구 전통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쌓은 학문적 자산과 동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정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신뢰받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박사과정 졸업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체제 안정화 전략과 엘리트 구조 변화



김시헌

출신학교
MGIMO

관심분야
러시아 정치
(엘리트, 국제정치, 국내정치, 군사안보)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박사 과정 졸업생 김시헌입니다. 2022년 3월 박사 과정에 입학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독립된 연구자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석사 과정 그리고 중간에 다녀온 군 복무 기간까지 고려하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에서 보낸 총 8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졸업 이전까지는 하루 빨리 치열한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학위증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려니 복잡한 감정이 가득합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할 때와 다르게 박사 학위를 공식적으로 수여한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학자에게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박사 과정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더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석사 과정과 달리 박사 과정에서 마주한 고민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마주했던 의문은 러시아·CIS 지역에 대해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와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과연 '지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고민은 졸업 이후 '직업'으로서 전문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을 졸업 이전까지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학원을 졸업하는 지금까지 저는 그 고민에 대해 아직 명확하고 확신에 찬 답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전공인 권력 엘리트와 비교권위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깊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지역학' 또는 '지역 연구'에서 강조되는 전공 지역 내 네트워킹과 언어 실력 역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생각의 끝에서는 다시 한번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며 공부만 하고 있는지, 즉 '학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독립된 연구자로 출발하는 이 순간이 불안합니다. 나아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민의 연속 속에 진행된 학위 수여식은 마무리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졸업식 축사에서 총장님께서는 "박사는 지식의 생산과 전승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대학원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후배에게 유익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할 만한 역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졸업 수기를 통해 지식이 아닌 선배로서 대학원 과정에서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를 공유합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고민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누군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연구자로서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원 과정은 많은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동료들과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해주시며 제가 독립된 학자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제성훈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의 엘리트 연구를 시작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고민해주신 장세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생활 내내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홍완석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노력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유엔 총회 반나치 결의안에 나타난 러시아의 외부 정당화 전략 분석



문승원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정치 및 안보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문승원입니다.

2024년 1학기, 새로운 배움에 대한 설렘을 안고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학업만큼이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재학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학과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학업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어떻게든 흘러가더군요.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다짐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학과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공동체에 속하려면 잇속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손해 볼 것이라며 마다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 더 수동적인 집단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힘은 이익을 빠르게 계산하거나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명민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상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학교생활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일부 원우가 제 행동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큰 보상이나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라, "덕분에 고마웠다"는 한마디, 혹은 말없이 건네는 신뢰가 저를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도 버틸 수 있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관심을 보여 주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중앙아시아 3국 대(對)러시아 이주의 구조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지훈

출신학교
성균관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경제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국제지역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는 현지훈입니다.

입학할 즈음, 학부 때와는 다른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선은 무사히 잘 끝내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학업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어느덧 그 시간들이 흘러 졸업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음에도 계획했던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특히 석사 논문을 쓰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지적인 재미는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묵묵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지지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 논문을 쓰며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준 문승원 원우와 김재명 원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 작성 중에 두 원우의 격려는 저에게 큰 심리적 지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세심하게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과정이 더뎠음에도 인내심 있게 지도해주신 덕분에 학문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통계 및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저에게 계량경제학을 차분히 공부해보라고 조언해주신 홍완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논문 심사에서 소중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조언해주신 염동호 교수님과 제성훈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공부했던 모든 원우들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익숙했던 국제지역대학원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낯선 출발선에 서니 긴장도 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내고 싶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CIS 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재명

출신학교
한림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지정학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석사과정 졸업생 김재명입니다. 2024년 3월에 입학하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첫 학기 개강 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자기소개 글을 적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책상에 앉아 글을 적고 있던 저 한 명만 떠오릅니다. 졸업 수기를 적고 있는, 지금은 대학원 과정에서 제게 도움 주신 분들이 생각납니다. 이 글을 빌려 지난 2년의 여정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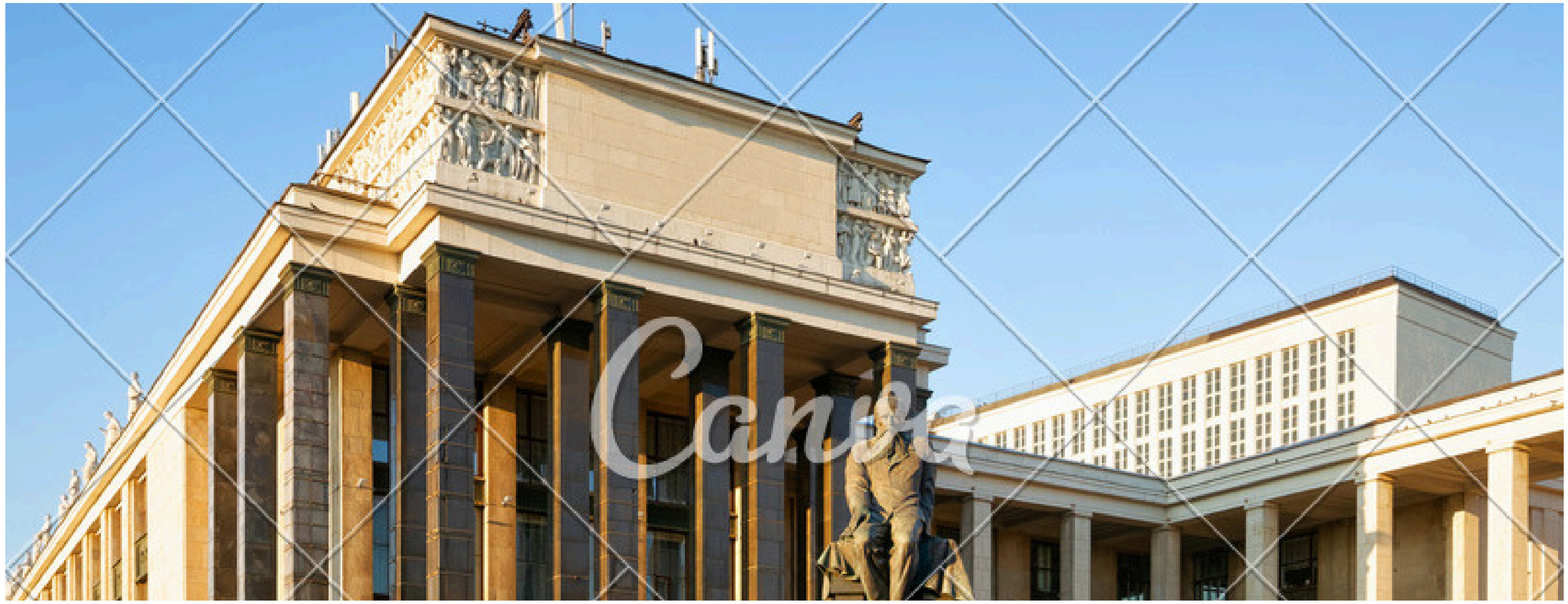
가장 먼저,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댁에서 통학하며 의도치 않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무뚝뚝한 손자를 따뜻하게 챙겨주신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하시는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학문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학원 첫걸음부터 자상히 맞이해주시고 큰 가르침 나누어주신 홍완석 교수님, 우리 학과를 든든하게 이끌어주시며 늘 격려해주시는 제성훈 주임교수님, 학위논문 심사에서 연구의 방향을 짚어주시며 응원해주신 이상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위논문을 이끌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염동호 교수님, 부족한 제자를 독려해주시며 세심히 지도해주신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베푸신 시간과 마음 오래 간직하여, 저 또한 베풀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지역대학원 교학처 전동기 차장님, 최고원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조교로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개 학기 동안 동고동락한 동기, 문승원 원우와 현지훈 원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 때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든,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두 형들 늘 응원합니다. 선배님들과 원우님들도 감사한 분들 많습니다. 모두 각자의 길에서 뜻한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며, 사회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IV 학과 관련 정보

- 학술 동정
- 2026-1 교수진
- 졸업생 취업 현황

학술동정 # 교수 동정



제성훈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



УДК 323.3
ББК 66.3(0)

Дата поступления статьи: 18.12.2024
Дата принятия статьи: 05.05.2025

ОСОБЕН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СИСТЕМ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2024 г.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Соколов
Яросла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П.Г. Демидова, г. Ярославль,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ун Хун Чже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кук, г.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апик Артурович Бабаджанян
Яросла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П.Г. Демидова, г. Ярославль,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Аннотация. *Введени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 созданием и внедрением систем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новым феноменам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сервисов и платформ оценивания граждан.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подходы к анализу этого явления, приводится специф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оторые наблюдаются в процесс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 оценки. *Материалы и методы.* В статье приводятся результаты экспертного опроса по полуформализованной анкет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 апреле – июне 2024 года. Респондентами выступили 32 специалис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депутаты, политтехнологи, специалисты в сфере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уз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Анализ.*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эксперто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цели созда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внедр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отмечают, что из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лноценных систем оценки в политике нет, только часть из них отмечают, что видят отд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ее проявления в этой сфере. При этом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и угроз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систем рейтингования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успешно использованы и интегрированы в не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де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что потенциальное создание и внедр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 мног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олитике. К тому ж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технологии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приведут к полному контролю граждан и граждан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стандартизируют социально одобряемое поведение.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тенциальное создание и внедр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может позволить упрости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и государством и сделать ее более прозрачно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иски контроля, субъективности критериев, потеря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и техн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отслеживания рейтингования заставляют скептически относится к технологиям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Вклад авторов.* А.В. Соколов разработал теоретико-методологическую базу и методический дизайн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делил базов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феномена социальный рейтинг;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кейс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в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л реестр экспертов и организовал их интервью; обобщил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и сформулировал выводы. Сун Хун Чж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кейс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сформулировал доминирующие тенденции создания и внедр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осуществил анализ и перевод зарубеж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собранных эмпи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П.А. Бабаджаня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доработке общей методологии и разработке дизай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осуществил проведение интервью и фокус-групп по теме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и описа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Авторы совместно подготовили содержание 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е выполнено за счет гранта Российского научного фонда № 24-28-00728 «Полит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граждан», https://rscf.ru/project/24-28-00728.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оци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истема оценки,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Интернет.

Цитирование. Соколов А. В., Чже С. Х., Бабаджанян П. А. Особен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систем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2024 г.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 Вестник Волго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4, История.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 2025. – Т. 30, № 5. – С. 210–223. – DOI: https://doi.org/10.15688/jvolsu4.2025.5.17

제성훈 교수는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평점(social rating) 시스템의 잠재적 구축과 도입 가능성(ОСОБЕН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СИСТЕМ СОЦИ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ОВАНИЯ 2024 г.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을 분석한 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시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의 등장에 주목하며 정치 영역에서 사회적 평점 시스템이 형성될 가능성과 그 제도적 함의를 탐구한다.

연구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정치 컨설턴트, 디지털 기술 전문가, 대학 행정직 및 교수 등 총 3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현재 정치 영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사회적 평점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나 일부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시스템이 정치 영역의 다양한 활동 방식과 제도적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성훈 교수는 '발다이(Valdai)'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정세와 러시아의 대외 전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발다이' 연례 회의는 러시아 정부가 설정한 시의성 있는 국제 의제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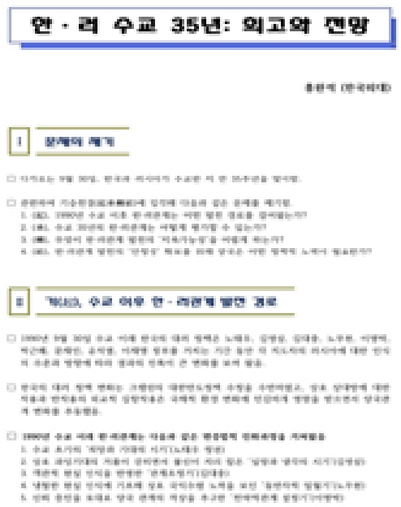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러시아가 제시하는 주요 국제 의제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일정한 논리적 정합성과 현실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해 비서방 국가 출신 전문가들의 견해를 폭넓게 청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설정한 국제 의제와 그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술동정 교수 동정



홍완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명예교수


한·러 수교 35년: 회고와 전망



홍완석 교수는 2025년 9월 1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한 '한러 수교 35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러 수교 35주년: 단절에서 연속으로'를 주제로, 수교 35주년을 맞아 한·러 관계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완석 교수는 '한러관계 35년 발전과 평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지난 35년간 양국 관계의 발전 경로와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홍완석 교수는 수교 초기 노태우 정부의 '희망과 기대의 시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관계 역진기'를 거쳐 현 이재명 정부의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대러 정책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총 9단계로 세분화하여 양국 관계의 변증법적 진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아울러 홍완석 교수는 2008년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내실 부족으로 인해 외교적 수사 차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하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적·구조적 제약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전제 조건들을 제시했다.

홍완석 교수는 2025년 11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중점(장기)과제 연속간담회: 유럽과 러시아'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과 러시아 대내외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홍완석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홍완석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한 양자 대결이 아닌 내전(제한전), 예방전(전면전), 대리전(패권전쟁), 가치전쟁(국제전)이 중첩된 '4층 구조의 복합전'으로 정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급소이자 역사적·종교적 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전쟁의 판도를 바꿀 '블랙 스완'으로 지목하며, 현재의 전황과 국제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쟁의 전개 방향을 확전(3차 대전),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 평화협상에 의한 종전, 한국전쟁 식의 휴전, 장기 소모전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유형화하여 전망했다. 끝으로 홍완석 교수는 전쟁 당사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전쟁의 최종 종식은 유라시아 안보 질서 재편에 대한 미·러 간의 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11월 13일, 홍완석 교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2025 한러 정경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러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동북아시아 현 상황과 한러관계'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전직 외교관 및 주요 석학들이 모여 국제질서 변화 속 양국 외교·경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였다. 홍완석 교수는 제1세션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러 외교협력'에서 "위기의 한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완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양국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술동정 KCI 등재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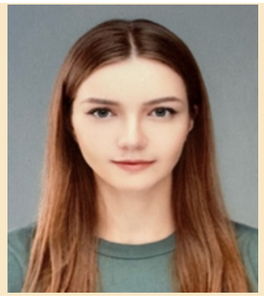


김시헌

박사과정 졸업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
-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

『슬라브硏究』41권 4호(2025)



Zagnibida Victoria

박사과정

Существует ли «русофоб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урнал «Корееведение»•4(2025)



주제어: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 러시아 외교, 카자흐스탄 외교,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 비판적 실재론
Keywords: Russia-Kazakhstan relations, Foreign relations of Russia, Foreign relations of Kazakhstan, Dynamic Analytic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Change, Critical realism

투 고 일 : 2025. 11. 24
심 사 일 : 2025. 12. 01~2025. 12. 10
게재확정일 : 2025. 12. 15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
-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

김 시 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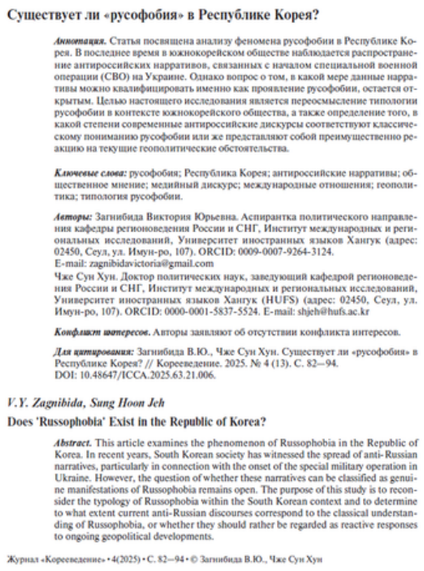
I. 서 론
II. 비판적 실재론과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
III. 러시아 의존적 양국 관계 (1990년대~2000년대)
IV.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영향력 감축 시도 (2010년대~현재)
V. 결 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복잡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을 인과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파편화된 실재를 포괄적으로 구성해 지난 30여 년 동안의 양국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물질적인 상호 의존을 심화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 관계에는 이념적 이질성이 발생했고, 이는 카자흐스탄의 다중 벡터 정책을 중심으로 양국 엘리트의 상호작용에 갈등 기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전에 형성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는 양국의 엘리트가 갈등을 첨예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게 하며 기존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상호작용의 특징은 변화했지만, 그것이 양국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다중 벡터 정책은 과거에 비해 정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시헌 원우(박사과정 졸업)는 2025년 12월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을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인과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슬라브硏究에 게재했다. 김시헌 박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파편화된 실재를 포괄적으로 구성해 지난 30여 년 동안의 양국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물질적인 상호 의존을 심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 관계에는 이념적 이질성이 발생했고, 이는 카자흐스탄의 다중 벡터 정책을 중심으로 양국 엘리트의 상호작용에 갈등 기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전에 형성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는 양국의 엘리트가 갈등을 첨예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게 하며 기존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상호작용의특징은 변화했지만, 그것이 양국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다중 벡터정책은 과거에 비해 정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Существует ли «русофоб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ннотаци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феномена русофоб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блюда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нарратив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ачало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ВО) на Украине. Однако вопрос о том, в какой мере данные нарративы можно квалифицировать именно как проявление русофобии,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Целью настоящ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типологии русофобии в контекс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 также определение того, в какой степени современные антироссийские дискурсы соответствуют классическому пониманию русофобии или ж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еакцию на текущи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усофоб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нтироссийские нарративы;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медийный дискурс;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геополитика; типология русофобии.

Авторы: Загнибида Виктория Юрьевна. Аспирантк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кафедры регионоведения России и СНГ,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адрес: 02450, Сеул, ул. Имун-ро, 107). ORCID: 0009-0007-9264-3124.
E-mail: zagnibidavictoria@gmail.com
Чже Сун Хун. Доктор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егионоведения России и СНГ,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HUFS) (адрес: 02450, Сеул, ул. Имун-ро, 107). ORCID: 0000-0001-5837-5524. E-mail: shjeh@hufs.ac.kr

Конфликт интересов. Авторы заявляют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нфликта интересов.

Для цитирования: Загнибида В.Ю., Чже Сун Хун. Существует ли «русофоб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Корееведение. 2025. № 4 (13). С. 82—94.
DOI: 10.48647/ICCA.2025.63.21.006.

V.Y. Zagnibida, Sung Hoon Jeh

Does 'Russophobia' Exist in the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henomenon of Russophobia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years, South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the spread of anti-Russian narrative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onset of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in Ukraine.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narratives can be classified as genuine manifestations of Russophobia remains op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typology of Russophobia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and to determine to what extent current anti-Russian discourses correspond to the classical understanding of Russophobia, or whether they should rather be regarded as reactive responses to ongoing geopolitical developments.

Журнал «Корееведение» • 4(2025) • С. 82—94 • © Загнибида В.Ю., Чже Сун Хун

빅토리아 자그니비다(박사과정) 원우는 "대한민국에 '러시아 혐오(Russophobia)'는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2025년 12월 러시아 학술지인 'Корееведение'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혐오 현상을 분석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이른바 '특별군사작전(SVO)' 개시 이후 반러시아적 서사가 확산 시점에 이러한 서사들이 과연 '러시아 혐오'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 혐오의 유형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나타나는 반러시아 담론이 전통적 의미의 러시아 혐오—즉, 지속적이고 문화·이념적으로 고착된 적대적 인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시점의 지정학적 상황과 대한민국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에 가까운지를 규명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범주로 환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러 관계의 역사적 맥락, 대한민국의 동맹 구조, 그리고 국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해당 담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학술동정

2025 DMZ 에코피스포럼 한국유럽학회 패널 참가



김애리 박사과정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 간 협력 프로그램의 경험과 교훈: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의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주최, 한국유럽학회·EURAXESS KOREA·Hanns Seidel Foundation Korea·외교부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된 '2025 DMZ 에코피스포럼 한국유럽학회 패널'에 발표자로 참가했습니다. 본 포럼은 "K-PEC 이후의 질문: 한반도 평화와 유럽통합의 교차로에서"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유럽 통합 경험과 비교하며 새로운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에스토니아-러시아 국경 협력 프로그램의 경험과 교훈: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러시아와 유럽 간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학술동정

한러수교 3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회의 참석

2025년 9월 19일,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러 수교 3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러 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역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한러 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회의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러시아연구소 패널이 '21세기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길'을 주제로 러시아의 대외 인식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후 한러 협력 방안'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은 '한·러 관계 35주년: 평가와 주제'를 중심으로 한러 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해외 학자 패널이 참여한 제4세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의 역할'을 주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실상과 군사 및 외교 전략, 전쟁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교착 국면에 놓인 한러 관계를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재조명하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내외 러시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술동정

제4차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 개최

제4차 HUFS GSIAS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가 2025년 12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CIS 지역의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세션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회의에서는 변경아(석사과정 2학기) 원우가 「확장된 Matland 모형을 통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집행 변동 분석: 2014년과 2022년 사례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환 교수(브릭스 전공 특임강의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 손민정(석사과정 2학기) 원우는 「제재 환경 하에서의 러시아 재정준칙: 상반된 정책적 선택 요인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고주영 연구원(경제경영연구소 초빙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 번째로는 유형진(석사과정 4학기) 원우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통한 한-EAEU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유정 교수(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제2회의에서도 세 편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지호(석사과정 2학기) 원우는 「상징권력의 축적과 발화 조건의 변화: 2014년과 2022년 전승절 비교」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김시헌 원우(국제지역학과 러시아-CIS지역전공 박사 졸업)가 토론하였다.

이어 아미로바 아이술루(석사과정 3학기) 원우는 「부모의 노동 이주로 인해 남겨진 아동: 학교 참여의 어려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소연 원우(국제지역학과 러시아-CIS지역전공 박사 졸업)가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최재영(석사과정 2학기) 원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후 러시아 해군 전략의 변화: 해양 독트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심종현 원우(국제지역학과 러시아-CIS지역전공 박사 졸업)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지역과 주제를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러시아·CIS 지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과 전문가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술동정

2025학년도 2학기 수원 학술세미나 개최

러시아-CIS학과는 논문 중간발표를 겸한 교외 학술 탐방으로 2025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수원에서 학술 MT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 성곽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는 수원화성의 역사적·공간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첫째 날, 학생들은 장안문과 서장대를 방문해 전문 해설과 함께 수원화성의 축성 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장헌세자의 원침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 뒤 1796년 완공한 성곽으로, 효심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성곽을 따라 걸으며 듣는 설명은 문헌 속에 머물러 있던 역사적 지식을 실제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다.

오후에는 수원화성박물관을 방문해 관련 전시를 관람한 뒤, 세미나실에서 석사 과정생들의 학술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제의식과 분석 틀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현장 탐방 직후의 경험이 더해지며, 토론은 발표 내용에 새로운 시각과 한층 깊어진 해석을 더해 주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박사 수료생들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다.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밀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화성행궁을 방문해 왕권과 도시, 군사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었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어 봉돈에서 연무대까지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늦가을의 풍경을 만끽했고, 마지막으로 화성어차를 탑승해 수원화성의 전경을 감상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학술동정 # 북중러 삼각관계: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 러시아-CIS학과 국회세미나 참석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북중러 삼각관계: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기조 세션에서는 북중러 협력의 구조적 배경과 향후 전개 가능성을 짚고,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북중러 협력 강화에 대한 러시아·중국·미국의 시각과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했다. 제2세션에서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우리 학과 주임교수인 제성훈 교수가 ‘북중러 협력 강화와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제성훈 교수는 북-러 관계 강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안보 기여자(Key Security Contributor)’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핵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해 러시아의 지지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중러 협력이라는 복합적인 국제 현상을 안보·외교·경제·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층위에서 조망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학술동정 Russia Report 연례 세미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2026 러시아를 전망한다’ 참석

2026년 1월 9일,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Russia Report 연례 세미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2026 러시아를 전망한다’가 개최되었다.

Russia Report 세미나는 러시아연구소의 정기 학술 행사로, 지난 한 해의 러시아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사회와 국제관계, 그리고 국내 러시아 연구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러시아의 향방을 다각도로 전망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러시아 국내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군사안보, 한러관계,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의 러시아에서 나타난 변화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분석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연구와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동정

2025학년도 2학기 러시아-CIS학과 동계방학 독서세미나 개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2026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에서 동계 방학 독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독서 세미나는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었고, 『고독한 아이디어들』, 『노르트스트림의 덫』, 『핵무장 조선』, 『달러 이후의 질서』의 도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원우들이 4개의 도서 중 1개를 선택하였고, 완독 후 토론하며 저자의 의견에 대한 생각, 책을 향한 제언, 해당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산했다.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CIS학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과 더불어 함께 공부하며 그 지식을 세상에 펼쳐 더욱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마음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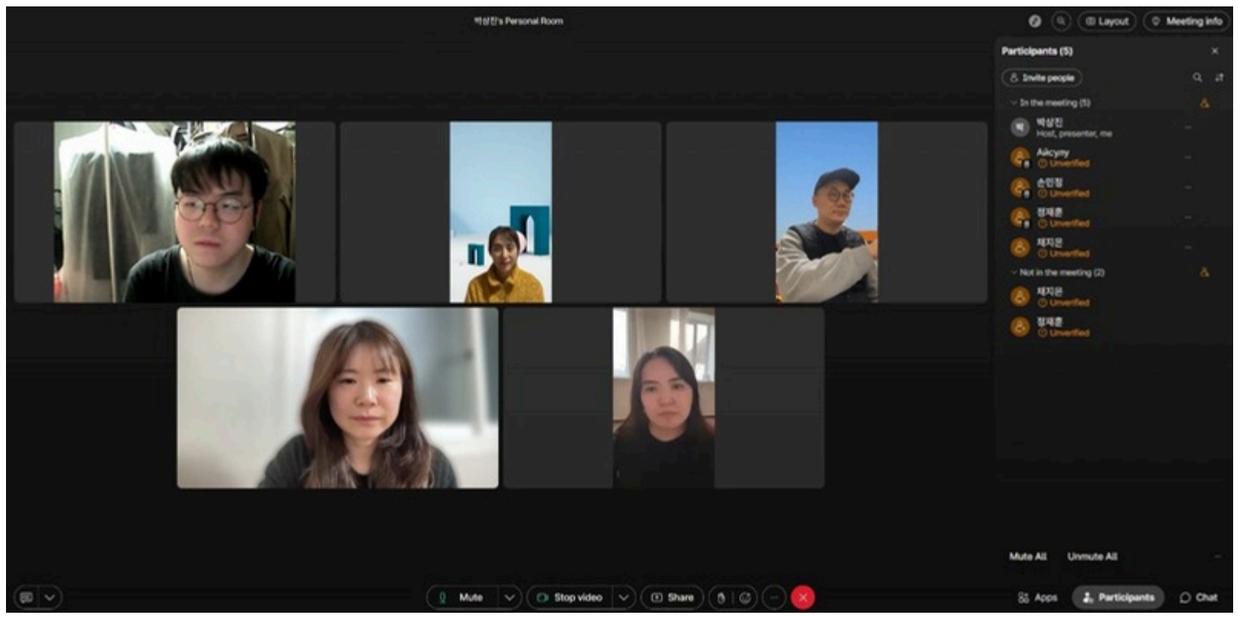
『달러 이후의 질서』 팀(박상진, 손민정, 정재훈, 채지은, Amirova Aisuluu)은 본 저작의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제 관련 전공자들이 느낀 현실적인 평가와 연구 확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경제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일부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자가 지역학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적 현상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치적·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설명한 점이 다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노르트스트림의 덫』 팀(조현준, 김선아, 황연수, 박부병)은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덫을 놓았는가? 아니면 유럽이 스스로 그 덫에 걸린 것인가?”라는 질문이 세미나를 관통했다. 노르트스트림의 완성과 운영의 책임론에 대해 논의했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유럽을 치열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과 함께 대외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노르트스트림의 덫』 팀(조현준 외 3인)



『달러 이후의 질서』 팀(박상진 외 5인)



학술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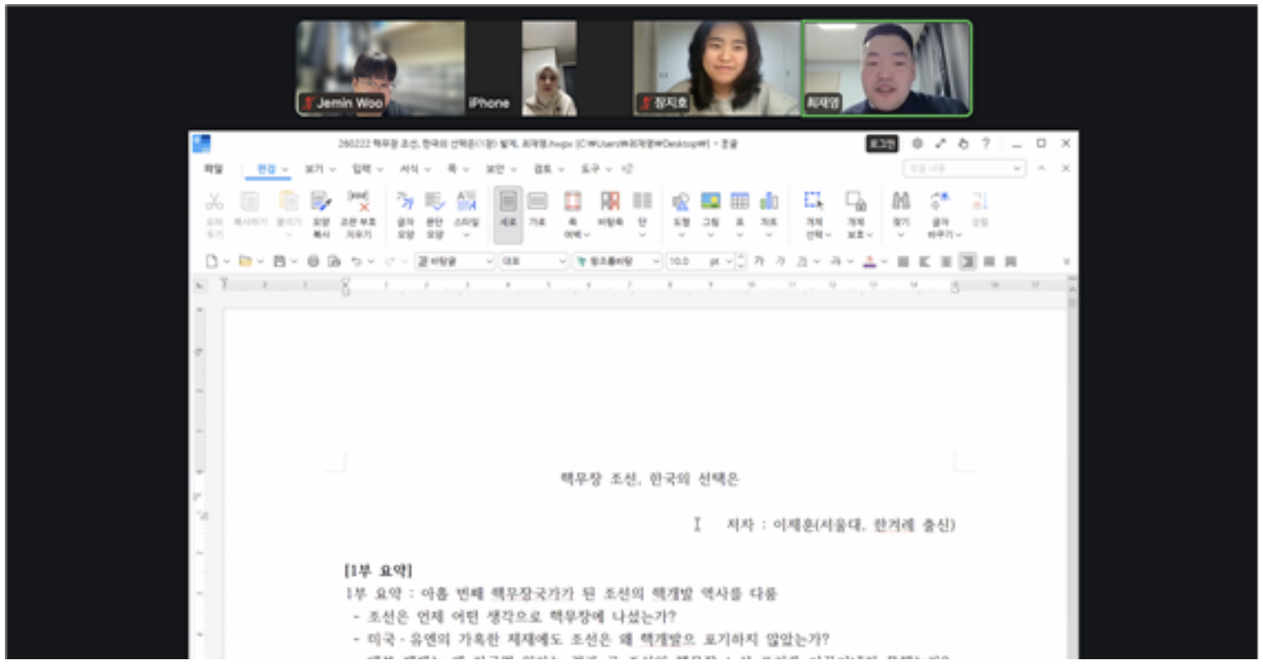
2025학년도 2학기 러시아-CIS학과 동계방학 독서세미나 개최

『고독한 아이디어들』 팀(장여진, 변경아, 김애리, 이혜나, 최종원, Shin Nadezhda, Zagnibida Victoria)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의 혁신을 단순한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장 중심의 외부 평가와 국가·사회 내부에 축적된 성과 사이의 간극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가 주도의 혁신은 초기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민간 투자와 시장 메커니즘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축적과 재생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식적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혁신 환경은 오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인식 속에서 형성된 결과인 만큼, 러시아의 혁신 체제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논의가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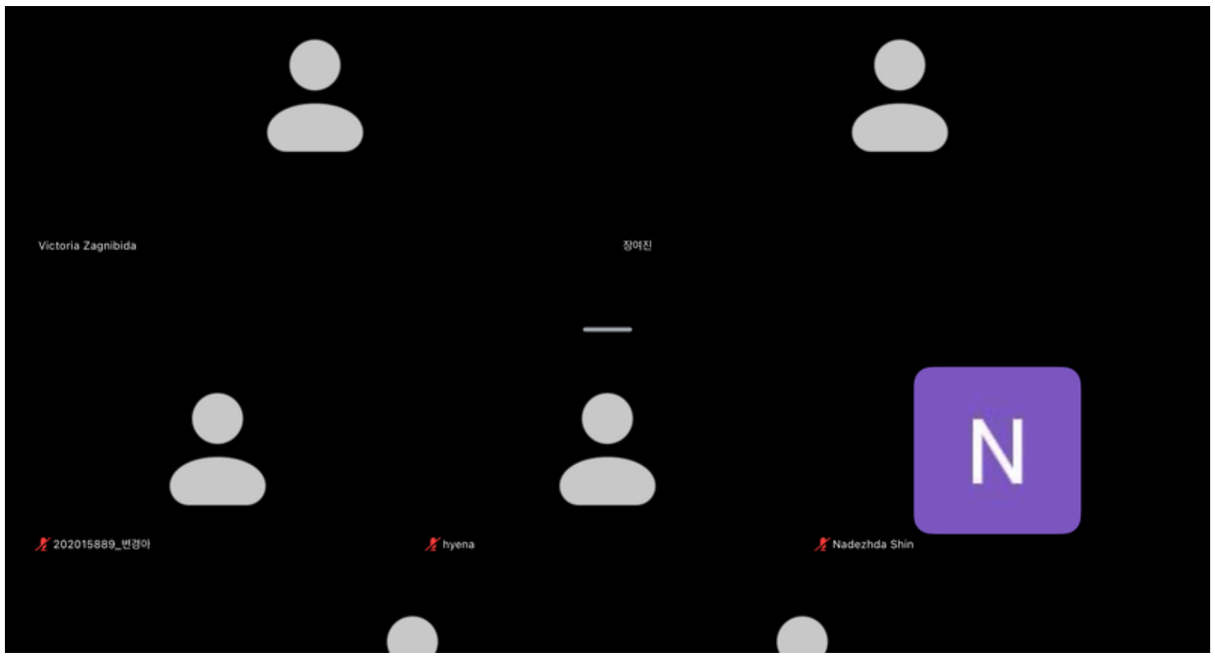
『 핵무장 조선 』 팀(우제민, 장지호, 최재영, Abdurahimova Shukrona)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연구 과정과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등 결정적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호성 전략, 인도의 대국 지위 확보, 파키스탄의 생존 위기 대응, 일본의 잠재적 핵 능력 유지 및 대만의 실패 사례를 통해 각국의 전략적 선택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박정희 정권의 비밀 핵개발 시도와 실패 과정, 그리고 최근 다시 부상하는 자체 핵무장론의 현실적 제약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안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평화를 모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동계 방학 독서 세미나 결과는 2026년 1학기 중 러시아-CIS 특강 수업에서 모든 원우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방학 때 쌓았던 지식의 향기를 더욱 향기롭게 만들 예정이다.

『핵무장 조선』 팀(우제민 외 3인)



『고독한 아이디어들』 팀(장여진 외 6인)



학술동정

RUSSIA·CIS TALK 월간 원우 논단

항목	제호	성명	학위 과정	발간 일자	주제
RUSSIA·CIS TALK 월간 원우 논단	Vol.7	엄동재	석사수료	2025.7.1	러·중의 '무제한 파트너십' 선언, 동상이몽의 합창 ?
	Vol.8	김재명	석사졸업	2025.8.1	유라시아개발은행(EDB) 설립 배경과 목적은 ?
	Vol.9	박부병	석사과정	2025.9.1	북·러 동맹관계, 지속 가능한가 ?
	Vol.10	자그니비다 빅토리아	박사과정	2025.10.1	한국에서 '루소포비아'는 존재하는가 ?
	Vol.11	김애리	박사과정	2025.11.1	러시아의 ' 귀환자 ' (repatriate) 개념 법적 도입의 전략적 의미
	Vol.12	장여진	석사과정	2025.12.1	다시 만난 북·중·러, 협력의 화려한 외형과 현실



2025 Vol. 07 2025.07.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Article

러 · 중의 '무제한 파트너십' 선언, 동상이몽의 합창?

엄동재
석사과정, 러시아 · CIS학과 정치 전공
realeo12@gmail.com

황금 밀월기를 구가하는 중·러

지난 5월 7~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행사 전날인 5월 8일 시진핑은 크렘린궁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고한 '견미(牽美) · 반패권 연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중 · 러 정상회담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45번째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2기' 취임 후 처음이다.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국력의 강화와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대체할 수 없는 최적의 현실적 파트너다. 2024년 양국 간 교역액은 2,44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뿐 아니라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 경협의 가파른 증대, 에너지 수급의 전략적 연합,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심화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통해 중 · 러 관계는 유사 이래 최고의 황금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림1] 중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출처: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와 중국이 서구를 향해 지속적이고 강한 어조로 '무제한의 파트너십'을 함께 외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전략적 연대 이상으로 발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자국 우선주의적 헤게모니 지향 성향이 강하고, 과거 영토가 뒤바뀐 역사적 악연에다가 껄끄러운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국익 또한 조화보다는 충돌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가들의 관심은 돈독함으로 위장된 중 · 러 전략적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모아진다. 이 의문은 러 · 중의 협력을 유도하는 '기회 요인'과 그것을 방해하는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러·중 협력의 기회요인

현재 러 · 중 우호 관계 심화를 유인하는 핵심 요인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공동의 위협 인식'이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러 봉쇄 정책(나토 확장 및 우크라이나 지원)은 북경과 모스크바에 지정학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일극 우위적 패권 질서를 유지 · 강화하려는 강한 헤드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 · 러에 반미 · 반패권이라는 동일한 전략관에 기초한 공고한 연대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중 · 러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국이며, 중국은 러시아에 소비재와 전자제품,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교역 파트너다. 특히 SWIFT 제재(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 이후, 러시아는 중국의 CIPS(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성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접착제다.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는 중국에 안정적으로 석유 및 가스를 공급하고,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재정난에 직면한 크렘린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다.

러·중 협력의 제약성

러 · 중 간에는 내실 있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제약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10배, 인구는 9배, 기술력과 국제 영향력에서도 중국이 위위를 점하고 있다. 크렘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는 대중 첨단 무기의 수출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양국 간 '전략적 신뢰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는 미래 어느 시점에 중국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영토 문제와 맞물린 역사적 불신의 잔재도 중 · 러관계 심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루스키들에게는 악 두 세기 반에 걸친 (1240~1480) 몽골 지배로 황색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다. 이러한 '황화론'은 오늘날까지도 '시노포비아'와 같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잠재해 있다. 실제로 인구가 희박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와 노동자 유입은 러시아 측에 '비군사적 영토 확장' 혹은 '소리 없는 침략'으로 인식되며, 북경의 '그림자 영토 점령 전략'에 대한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국 관계에 있어 불신이 러시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북경의 민족주의자들은 과거 청나라 말기에 체결된 아이훈조약(1858년)과 베이징조약(1860년)을 잊지 못하고, 이 두 불평등조약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연해주 일원의 광활한 영토를 '치욕의 역사'로 기억한다. 중국은 자국 영토를 침탈한 제정 러시아 시대를 상기하며, 언제든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낼 수 있는 크렘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과거 냉전기,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이념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1969년 우수리강의 전바오다오(珍寶島 ·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영유권을 놓고 격렬하게 두 차례나 총부리를 겨누며 대립했다. 이는 러 · 중 간 영토 문제의 민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그림2] 진바오다오(다만스키섬) 분쟁 당시



(출처: Russia Beyond)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중 · 러의 과도한 지정학적 경쟁 역시 잠복된 긴장의 원천이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권(CSTO, EAEU)에 해당하며, 동시에 중국에는 과거 중화제국의 영향권이자 일대일로(BRI)의 핵심 통로다.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불협화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점은 수면하의 긴장 상태를 암시한다. 이처럼 러 · 중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 관계를 연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국익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러·중 협력의 미래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의 대미 위협 인식의 공유, 경제적 상호보완성, 에너지 협력, 다극 질서의 구축 등 실질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와 상호 불신 역시 공존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 · 러는 장기적인 우호 관계로 발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손을 잡되 언제든 갈라설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잠재적 경쟁자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을 서로 끌어당기는 이해관계라는 '자력'이 존재하는 한, 중 · 러의 협력은 쉽게 와해되지 않을 것이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채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Vol. 08 2025.08.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Article

유라시아개발은행(EDB) 설립 배경과 목적은?

김재명

석사과정, 러시아 · CIS 경제전공

balgeul0@gmail.com

유라시아개발은행의 설립 배경과 운용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다수의 차입국(개발도상국)과 재원공여국(선진국)이 참여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이다. MDB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을 들 수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열악한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해야 했는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지역 다자개발은행이 금융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존 국제개발은행의 지원으로는 중앙아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 지역의 전체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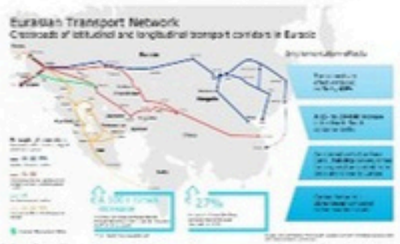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를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러시아가 2006년 1월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을 설립했다. 낙후된 탈소비에트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대러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르메니아와 타지키스탄이 2009년 EDB에 가입했다. 이어서 2010년 벨로루시, 2011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했다. 2025년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이 7개국으로 늘어났다. EDB는 투자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무역 및 경협 확대 등을 유도하고 유라시아의 통합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한다.

현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흑해무역개발은행(BSTDB), 신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도 EDB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EDB는 역내 다자개발은행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16%를 차지해 EBRD와 IBRD에 이어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2025년 4월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는 46억 달러이고, 7개 회원국에서 총 30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DB의 핵심 메가 투자 프로젝트

EDB는 2022년 「유라시아개발은행 전략 2022-2026」을 발표했다. 여기서 EDB는 역내 통합 효과가 높은 투자 프로젝트, 이를테면 역내 국가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인프라 건설 및 확충, 국가 · 국경 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가 큰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운송 인프라 및 물류, 수자원 및 에너지 복합단지(Water and Energy Complex),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중점 분야로 설정해 2026년까지 총 10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

[그림1] Eurasian Transport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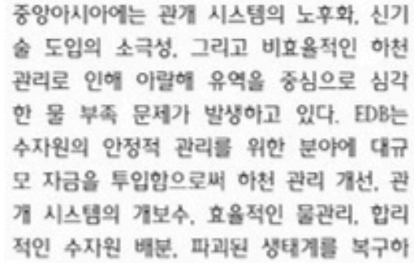


(출처: Eurasian Development Bank)

이와 관련하여 EDB는 역내 통합 효과의 잠재력에 주목한 전략 모델을 기반으로 아래 3가지 핵심 투자 메가 프로젝트(Key Investment Mega-Projects, KIMPs)를 선정했다.

첫째는 유라시아 교통 네트워크(Eurasian Transport Network) 구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의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 복합 교통 · 운송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바다 없는 내륙국으로, 해양으로의 직접적인 접근 경로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이 지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는 지리적 핸디캡을 해소하기 위해 EDB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범유라시아 교통 연결성의 강화와 효율적인 물류망 구축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유라시아 교통망의 중추는 동서 및 남북 축을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국제 교통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유럽, 중동의 내륙과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림2] Eurasian Commodity Distribution Network



(출처: Eurasian Development Bank)

둘째는 유라시아 상품 유통 네트워크(Eurasian Commodity Distribution Network) 구축이다. ECDN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농산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며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도매 및 유통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현대화해 생산자부터 소매업체까지 물류 체인의 간소화를 지향한다. 회원국 간 단일 물류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농산물 시장 통합뿐 아니라, 역내 및 역외 농산물 수출 증대와 공급망 비효율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취약한 식량안보 증진 목적도 있다.

마지막은 물 · 에너지 복합단지(Water and Energy Complex)에 대한 투자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의 만성적인 수자원 및 에너지 부족 현상 극복을 목표로 한다. 중앙아시아에는 관개 시스템의 노후화, 신기술 도입의 소극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하천 관리로 인해 아랄해 유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DB는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하천 관리 개선, 관개 시스템의 개보수, 효율적인 물관리, 합리적인 수자원 배분,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역내 에너지 시스템을 병렬로 운영함으로써 신규 발전소 건설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그림] Central Asian Water and Energy Complex



(출처: 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의 궁극적 비전

EDB의 메가 프로젝트 전략은 단순히 취약한 역내의 인프라 개발에 머무르지 않는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EA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범유라시아 통합권 형성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역내 교통 · 물류망 개발과 동시에, 중국, 인도, 이란, 및 걸프 국가들과의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한 역외 파트너십의 강화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과 이란의 남북교통회랑과의 연결은 유라시아 개발금융의 외연 확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탈 소비에트 권 역내 통합 강화와 역외 연계 심화를 토대로 EDB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연결성과 공동 번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고, 그 중심에서는 유라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이 숨어있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채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Vol. 09 2025.09.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Article

북 · 러 동맹관계, 지속 가능한가?

박부병

석사과정, 러시아 · CIS 정치전공

qnqud01@hufs.ac.kr

러시아의 군수 공백 메우는 북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외교안보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했다. 서방이 가한 전면적인 제재와 고립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던 러시아의 시선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북한으로 향했다. 2023년 9월 개최된 푸틴과 김정은의 러시아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은 탈냉전기 북 · 러 간 실질적 군사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2024년 6월 평양에서 이어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체결로 북 · 러 관계는 명실상부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

이 공생 관계의 핵심은 군사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성과 거래적 교환이다. 전쟁이 소모전이 되면서 군수물자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에 북한은 핵심적인 무기 공급처로 부상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북한은 수백만 발에 달하는 122mm, 152mm 포탄과 다연장로켓(MLRS), 단거리 탄도미사일(화성-11 계열),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 등 방대한 양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품질 문제를 지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산 무기의 열악한 품질 문제는 점차 실전 운용과 현장 적용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우크라이나군이 확득한 북한제 KN-23 잔해



(출처: 국정원)

우주 협력에서 도로 연결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중요한 반대급부는 식량 지원과 함께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3년 9월 극동의 우주기지 보스토치니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 우주 분야 협력을 공식화한 장면은, 북한의 오랜 숙원 사업이 현실로 다가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주발사체(SLV) 기술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상당 부분 연동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의 ICBM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자체 정찰위성을 확보하거나 러시아의 위성 정보를 공유받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대북 군사활동 감시는 물론이고 미사일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크게 강화될 수 있어 그 위협은 가히 실질적이다.

북 · 러의 군사적 밀착은 양국 국경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 4월 30일 착공한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이다. 이 도로 교량은 일일 300대의 차량과 약 2,850명의 인원 통과를 목표로 2026년 6월 19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우려되는 점은 북 · 러 두만강 교 건설이 관광 및 물류 교류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구조적 특성상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민 · 군 이중용도 (dual-use) 인프라로 간주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과 '보이는' 교통 인프라의 연결은 북 · 러의 협력이 단순한 필요에 의해 일시적 밀월을 넘어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동맹관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림2] 러시아 – 북한 간 다리 건설 진행 위성 사진



(출처: SI Analytics)

현실적 선택, 불확실한 미래

물론, 북 · 러 밀착이 러시아에 이익만을 안기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낮은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자칫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 러 관계의 회복 탄력성도 약화시켜 러시아 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의 참여가 부재한 극동 개발은 실속 없는 요란한 잔치로 끝날 수 있다. 북 · 러의 결착이 초래하는 역기능을 크렘린 전략가들이 모를 리 없다. 결국 북 · 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탄생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러시아에 당장의 실익을 주는 '현실적 자산'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가능한 전략 자산이 될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Vol. 10 2025.10.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한국에서 '루소포비아'는 존재하는가?

자그니비다 빅토리아

박사과정, 러시아 · CIS 정치전공

zagnibidavictoria@gmail.com

한국 내 반(反)러 정서 확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언론 담론에서 러시아는 주로 '위협', '침략', '갈등', '충돌'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와 결부되어 표상되었으며, 이는 문학 · 예술 활동의 취소, 경제 · 학술 교류의 축소 등 제도적 배제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2022년 3월 서울에서 예정되었던 볼쇼이 발레단 공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격 취소된 사건은 러시아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와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국가 이미지 악화로 보지 않고, 특정 국가와 민족에 대한 체계적 배제와 혐오라는 점에서 '루소포비아(Russophobia)'의 확산으로 규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국내 주요 언론에서 '루소포비아'라는 개념의 사용 빈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1] 취소된 볼쇼이 발레단 공연 포스터



(출처: 서울신문)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상을 과연 서구적 맥락에서 형성된 루소포비아와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 사회와 루소포비아

루소포비아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서구 문명 내 수 세기에 걸친 적대와 문명적 대립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담론적 범주로서, 문화적 고정관념, 이데올로기적 구성, 제도적 실천 속에서 구조화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소포비아는 '이질적 타자'로서의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문명적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문명적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조선 말기 제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문화적 친밀성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외부 세력으로 인식되었으며, 집합적 기억 속에서 구조적 갈등의 원천이 아닌 주변적 타자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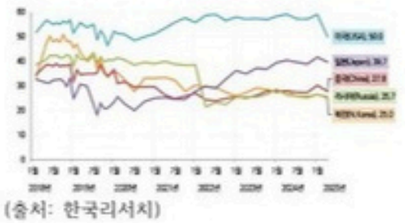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북한 지원은 적대적 이미지를 강화했으나, 냉전 종식과 1990년 한·러 수교 및 경제협력 확대를 거치며 러시아는 협력 가능한 파트너로 재인식되었다. 이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민족적 루소포비아'가 한국 사회 내에서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한국 사회의 대러 인식과 위협 담론의 형성

한국 사회에서 대러 인식 형성의 핵심 요인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건국 이래 일관되게 친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한·미 동맹을 축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에 깊이 연루되어 왔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 내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위협'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반러 정서는 문명적·민족적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맹 구조와 국제정치적 맥락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이를 실증한다. 2019년 7월까지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43.5%에 달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불과 두 달 만에 21.5%로 급락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한국 사회의 대러 인식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사건과 미디어 프레임의 영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 내 반러 감정은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문명적·민족적 적대가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한국 국민의 주변 4강 호감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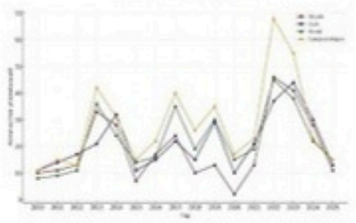


(출처: 한국리서치)

이와 같은 결론의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언론에서 '위협'이라는 핵심어와 함께 언급된 러시아 관련 담론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러시아는 구체적인 글로벌 안보위기와 관련되어 주로 상황적인 '위협의 원천'으로 부각되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크림반도 병합을 기점으로 러시아에 대한 언급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되어 약 45건을 기록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2024년에 이르면 이러한 담론의 강도는 뚜렷하게 약화되었다.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위협 담론의 핵심 대상이 되었으며, 2013년과 2022년에 언급 빈도가 약 7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역시 무역 갈등과 지역 위기 상황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림3] '위협'을 핵심어로 한 한국 언론의 주요국 언급 빈도



(출처: BigKinds 뉴스 아카이브)

종합하면, 언론 담론 분석은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달리 '위협' 이미지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띠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러시아는 주로 글로벌 안보위기와 국제 갈등의 국면에서 단발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서구 사회와 같은 문명적·민족적 요인보다는 사건적·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내 반(反)러 정서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

한국 사회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구적 의미의 '루소포비아'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적 과잉 일반화의 위험을 수반한다. 오히려 이는 사건적·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명적·민족적 반러 전통의 부재와 여론조사 결과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부정적 인식은 구조적 담론이라기보다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제 환경과 미디어 담론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중립적 태도로 회귀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례는 '루소포비아' 개념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서구적 전통에 기초한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 단순 이식하는 것은 현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 내 반러 정서는 서구 사회의 경우와 달리 구조적·지속적 '루소포비아'가 아니라 사건적·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원·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 러시아·CIS학회
발행인 ▪ 제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Vol. 11 2025.11.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러시아의 '귀환자'(repatriate) 개념 법적 도입의 전략적 의미

김예리

박사과정, 러시아 · CIS 정치전공

arkim@hufs.ac.kr

'재외동포'와 '귀환자'

2023년 11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2006년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재외동포의 러시아로의 자발적 재정착 지원 국가 프로그램』(이하 『국가 프로그램』)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귀환자'(repatriate) 개념의 법적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재외동포'(compatriot) 개념은 새로 도입한 귀환자 개념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의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 중 귀환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는다.

재외동포란 누구인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 국가 정책 연방법」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한 민족, 혹은 그 직계 선조가 러시아, 구소련, 러시아 제국에 거주했던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귀환자는 이전에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했던 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 영토에서 출생하거나 상시 거주했으며 구소련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러한 자의 후손을 뜻한다. 즉 현재 러시아 영토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로 그 지리적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재외동포보다 좁은 범위의 귀환자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전략적 이유는 무엇일까?

2006년 승인한 『국가 프로그램』은 이들 재외동포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는 실용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밖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역사적 고향' 러시아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소련 국가 출신들을 모두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이들의 러시아로의 이주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러시아 혹은 구소련 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를 '러시아 세계'(Russian World)라는 개념으로 묶어 그들의 러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러시아로의 자발적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국가 프로그램」의 악용 사례와 귀환자 개념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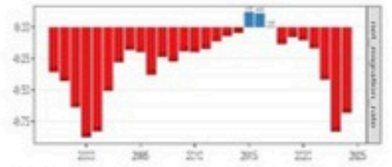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불법 체류자들이 『국가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돕는 조직범죄가 활성화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들과 결탁하며 부패도 발생했다. 또한 지정된 이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주로 모스크바)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동하는 경우, 오브닌스크 등 특정 도시에 외국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악용 사례들이 나타났다. 칼루가주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러시아 사회에 동화되기를 꺼리는 이주민들이 증가했다"라며 프로그램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지방의 노동력 확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귀환자 개념의 도입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세계재외동포대회에서 『국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2023년 개정안을 통해 신청자가 충분한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고, 귀환자의 경우 러시아 또는 구소련의 교육 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언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 장관은 『국가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사실상 러시아 국민이 아닌 4,000명의 지원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귀환자 개념의 도입은 러시아 사회로 귀환자들의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불법적 악용 사례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심화하는 두뇌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

귀환자 개념의 도입은 러시아의 두뇌 유출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러시아 연구 인력의 국외 유출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발생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출 규모가 커졌다.

[표1] 1997-2024년 러시아 연구 인력 100명당 순이동률



(출처: Andrey Lovakov (2025), "The impact of Russia-Ukraine conflict on international migration of Russian-affiliated researchers," *OSF Preprints* k8tbc_v1, *Center for Open Science*.)

독일 고등교육과학연구센터 로바코프(Andrey Lovakov)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를 떠난 연구 인력은 1,465명, 2023년에는 1,938명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1~5월에는 1,133명이 러시아를 떠났다. 반면 지난 3년간 러시아로 유입된 연구 인력은 각각 672명, 618명, 374명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보면, 2022~2024년 두뇌 유출이 가장 큰 분야는 물리학 · 천문학, 컴퓨터과학, 경제 · 금융, 경영 · 회계, 수학, 신경과학, 사회과학, 생화학 · 유전학 · 분자생물학, 심리학, 예술 · 인문학 순이었다. 반면 의학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물리학,

수학, 컴퓨터과학 등 첨단기술 또는 국제적으로 통합된 분야일수록 두뇌 유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인력의 유출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과학적·혁신적 잠재력이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 고등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2022~2024년 러시아를 떠난 연구 인력은 주로 독일, 미국,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 등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서방 국가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환자 개념 도입은 비우호국으로 떠났다가 러시아로 돌아오고자 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속한 귀환과 빠른 적응 및 정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추가로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은 비우호국 영토에 영구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이후 비우호국에 영구 거주 중 거주권을 상실하여 러시아로 귀국한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비우호국으로 떠났다가 여러 사유로 귀환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러시아로의 재정착 관련 서류 작업을 돕는 한 민간 업체는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스웨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비우호국들을 포함해 러시아 연구 인력이 많이 이주한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로의 귀환을 안내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고, 러시아로 귀환 시 장점, 귀환 신청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1] 러시아로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민간 업체의 '러시아로의 귀환' 안내 페이지



(출처: Central Migration Agency 홈페이지)

재외동포는 『국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로만 이주할 수 있으며, 이주한 곳에서 거주하며 일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귀환자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로도 이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구 인력이 연구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러시아의 귀환자 개념 도입은 유출된 러시아 두뇌의 귀환 유도라는 목표와 동시에, 귀환자의 사회적 통합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06년 『국가 프로그램』 실행 이후 실제 참여자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정책을 계속 변경하며 실행해왔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인구 감소와 두뇌 유출 문제 해결에 재외동포들의 귀환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후원·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 러시아·CIS학과
발행인 ▪ 채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Vol. 12 2025.12.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다시 만난 북·중·러, 협력의 화려한 외형과 현실

장여진
석사 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dmscoduwls@hufs.ac.kr

'사회주의 형제국'의 귀환?

지난 9월 3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열병식에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선 모습은 '냉전 시기의 '사회주의 형제국 연대'를 떠올리게 했고,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림 1] 중국 전승 80주년 대회 열병식



출처: Новая газета Европа (https://novayagazeta.eu)

한 달 뒤,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해 이른바 '베이징-평양 2단계 회담'의 흐름을 완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혈맹의 복원'을,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은 '안보협력의 심화'를 각각 상징하며 연대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림 2]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출처: РБК(https://www.rbc.ru/)

이로써 북 · 중 · 러는 베이징과 평양 두 무대를 오가며 연속된 외교 이벤트를 통해 '전통적 연대의 복원'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협력이 부활한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각국의 현실적 계산과 고유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전략의 교차점, 3국의 계산된 동행

이번 회동의 핵심은 세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지점에 있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 필요성이 이번 3자 회동의 토대를 제공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러야 했다. 특히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한 '경제 · 군사 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한은 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현했다. 동시에 첫 다자회의 참석을 통해 '정상 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회동은 대미 견제 구도 속에서 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베이징 회동과 평양 방문에서 공개된 장면들은 중국이 여전히 동북아의 중심이자 '조정자'임을 과시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활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협력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돌파구였다.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블록 내 '핵심 행위자'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결국, 미 · 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서방의 대러 제재는 세 나라 간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수렴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번 회동은 화려한 외형 뒤에 각국의 전략이 교차하는 계산된 동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 · 중 · 러 3자 협력의 현실

북 · 중 · 러 협력은 표면적 결속과는 달리 느슨한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회동을 두고 일부에서는 3자 협력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 나라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 북 · 중 · 러 3자 관계에는 공식적인 문서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3자 관계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이다.

북한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목표를 위해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제한된 국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은 북 · 중 · 러 3자 관계에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는 미 · 중 관계의 안정화이며, 신냉전적 구도 속에서 러시아 · 북한과 같이 묶이는 상황은 중국이 추구하는 강대국 외교 전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 · 북한과의 협력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주도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서 중국 ·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3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며, 국제질서의 핵심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

결국 북 · 중 · 러 삼각 협력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편의에 의한 임시적 결합에 가깝다. 외형적으로는 결속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이 연대가 견고한 삼각 파트너십이나 제도화, 심지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분간 세 나라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와 목표에 부합하는 호혜적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오늘날 국제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익의 분배와 균형이다. 모든 외교적 결속은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북 · 중 · 러 3자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회동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협력과 갈등이 얽힌 복잡한 외교적 계산 속에서 각국이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현실이다.

이것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외형적 연대나 상징적 장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전보다 더 현명하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관 ▪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학기 교수진 소개



제성훈 교수

2026-1 강의명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 연구 / 러시아-CIS특강

최종 학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유라시아 정치 경제
- 한·러 경제협력
- 러시아 대외정책

주요 경력
- (현)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
- (현) 한국외대 노어과 학과장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현) 학술지 '세계와 유라시아(TWE)' 편집위원장
-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이메일
jehsh09@gmail.com



홍완석 교수

2026-1 강의명
CIS국가체제연구

최종 학위
Moscow State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 국제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대내외정책
- 동북아 및 CIS 국제관계
- 한·러 관계

주요 경력
-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현) 김대중학술원 연구위원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2022~2025)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2022~2024)
-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2016),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2015)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장(2014~2015)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2009~2014)

이메일
evan@hufs.ac.kr



김석환 교수

2026-1 강의명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정치

최종 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치학 석사

연구분야
- 국제관계
- 엘리트
- 에너지

주요 경력
- (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 (전) 국회의장 자문 남북화해 및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 대한민국 정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위원
- 중앙일보 기자, 모스크바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1983~2006)

이메일
mberezka@gmail.com



염동호 교수

2026-1 강의명
유라시아경제분석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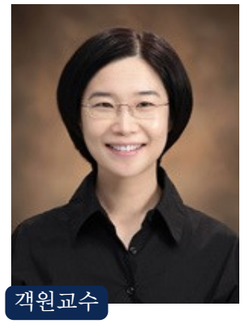
최종 학위
Hosei University /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 유라시아경제
- 경제통합

주요 경력
- (현)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지역정치경제) 교수
- (현) 한신대 빅데이터 마이크로전공 PD 교수
- (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이메일
dhyeom777@gmail.com

2026년 1학기 교수진 소개


객원교수

박선영 교수

2026-1 강의명	러시아 예술과 문화비평
최종 학위	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문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문학 및 문화 예술
주요 경력	•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충북대학교 전임연구교수 • (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메일	rodina197601@gmail.com


겸임교수

박정호 교수

2026-1 강의명	유라시아국제관계세미나
최종 학위	Moscow State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CIS 정치경제 • 유라시아 국제관계
주요 경력	•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 (현) 통일부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 • (현) 한-중앙아협력사무국 자문위원 •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현)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이메일	rodina197601@gmail.com


객원교수

조영관 교수

2026-1 강의명	중앙아시아경제세미나
최종 학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경제 • 중앙아시아 경제 • 한국·유라시아 경제협력
주요 경력	• (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메일	jycil@daum.net


겸임교수

김광환 교수

2025-2 강의명	러시아어
최종 학위	Moscow State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대외정책 • 한-러관계 • 러시아 대외정책과 NATO
주요 경력	• (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겸임교수 • (전) (LLC)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대표이사 • (전) (LLC) SIC - Semos-Invest 관리 및 컨설팅 이사 • (전) 교통발전재단, (주)KCO 해외협력이사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석사
이메일	konalena@naver.com

졸업생 취업 현황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1	석사	경제	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석사	경제	남	(주) 정원아이댄디
3	석사	경제	남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4	석사	경제	남	LG전자
5	석사	경제	남	LS산전
6	석사	정치	남	LG전자
7	석사	정치	남	해양경찰청
8	석사	경제	남	머니투데이 기자
9	석사	경제	남	(주) 팔도 모스크바 지사
10	석사	경제	남	영산그룹
11	석사	정치	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2	석사	정치	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3	석사	경제	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4	석사	정치	남	신성통상
15	석사	경제	남	농협
16	석사	경제	남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국비장학생
17	석사	정치	남	경찰청 외사국
18	석사	정치	남	3C 통상
19	석사	정치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20	박사	경제	남	해외한민족 연구소 소장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21	석사	정치	남	필룩스(LED조명 업체) 해외영업부
22	석사	경제	남	동북아지자체연합사무국
23	석사	정치	남	한국국방연구원
24	석사	경제	남	외교부 유라시아과 (국립외교원 합격)
25	석사	정치	남	펜타프레스(Penta Press) 매니저
26	석사	정치	남	한국석유관리원
27	석사	사회문화	남	경찰청 외사국
28	석사	사회문화	남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29	박사	정치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30	석사	사회문화	남	경찰청
31	석사	경제	남	삼성전자
32	박사	정치	남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
33	박사	정치	남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34	박사	사회문화	남	코레일
35	석사	경제	남	한국무역진흥공사
36	박사	정치	남	한국국방연구원
37	석사	정치	남	경남 경찰청
38	박사	경제	남	한국외대 강사
39	석사	경제	여	법무법인 율촌
40	석사	경제	여	국방부 군무원

졸업생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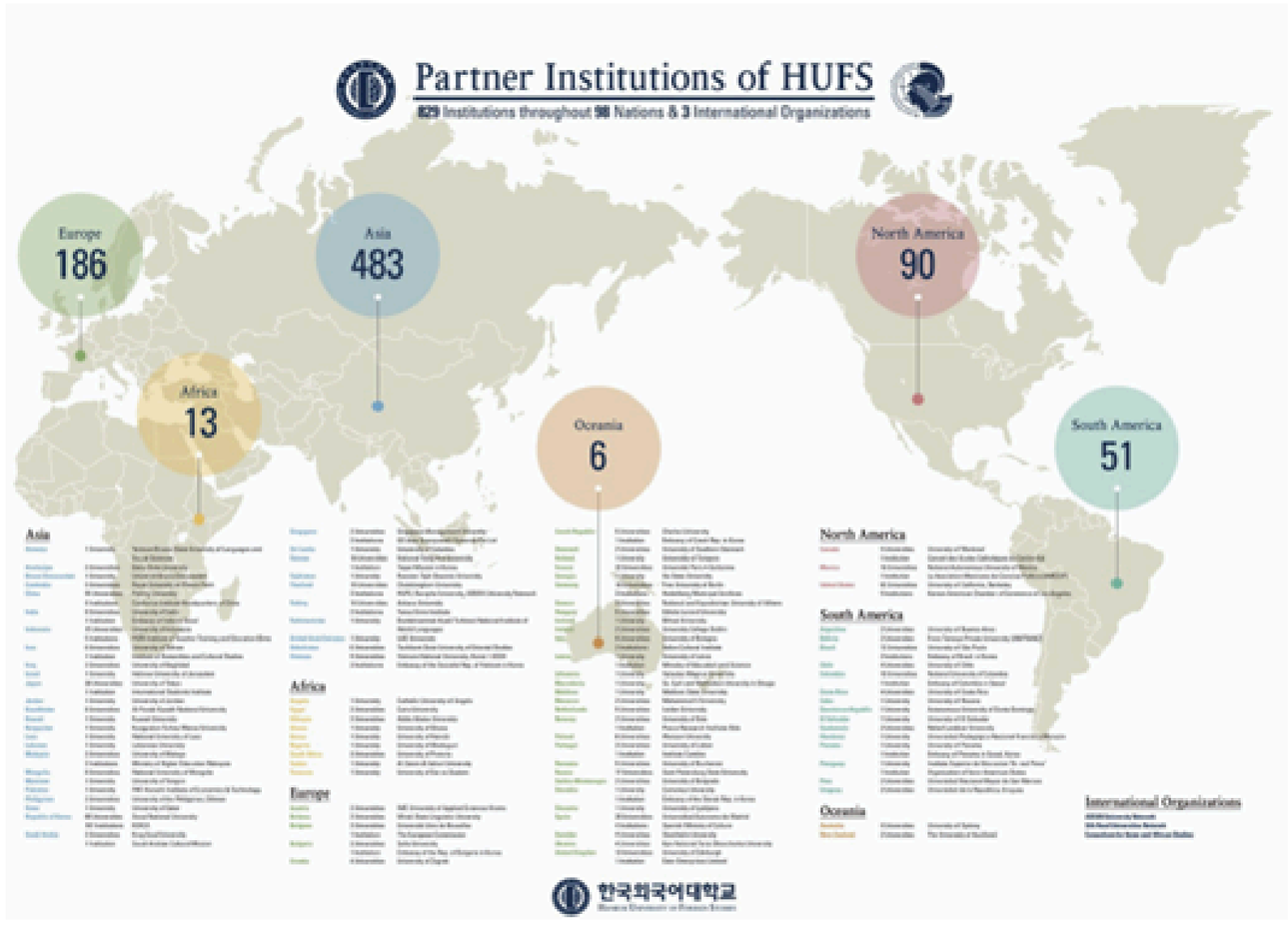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41	박사	경제	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	석사	경제	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박사과정
43	석사	경제	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4	석사	경제	여	캐나다 에드먼턴 대학교 교수
45	석사	정치	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46	석사	정치	여	한국소비자원
47	석사	경제	여	한국경제신문 기자
48	석사	경제	여	한국예탁결제원
49	석사	경제	여	강원도 공무원 교육행정직
50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하바롭스크 철도대학 박사과정
51	석사	경제	여	MGIMO / 가스프롬
52	석사	경제	여	University of Colima Ar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53	석사	정치	여	교통개발연구원
54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5	석사	경제	여	삼성SDS
56	석사	정치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57	석사	사회문화	여	강남구청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센터장
58	석사	경제	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59	박사	경제	여	한국국토연구원
60	석사	정치	여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극지연구소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61	석사	정치	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국비장학생
62	석사	사회문화	여	교육부
63	석사	정치	여	문화재청 미술문화재연구실
64	석사	정치	여	Korail Networks
65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6	석사	경제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강사
67	석사	사회문화	여	외교부(카자흐스탄 전문관)
68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69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사물인터넷협회
70	석사	경제	여	CICSOFT
71	석사	정치	여	제주평화연구원(JPI)
72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3	석사	경제	여	㈜ 한국석유공업
74	석사	사회문화	여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동방학연구소
75	박사	경제	여	㈜ 엘솔루
76	석사	경제	여	통일연구원
77	석사	경제	여	이영 국회의원실
78	석사	정치	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박사	정치	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80	석사	경제	여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졸업생 취업 현황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81	박사	경제	여	여시재
82	석사	경제	여	롯데칠성
83	석사	사회문화	여	차병원 기획실
84	석사	정치	여	신세계푸드 수출팀
85	석사	정치	여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86	석사	정치	여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87	석사	경제	여	신우밸브
88	석사	정치	여	카카오픽코마 ㈜보이스루
89	석사	정치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90	석사	경제	여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91	석사	경제	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교류 협정 체결 대학 및 기관



ЕГРИНА

발 행 제성훈
편 집 조현준(박사과정 2학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E L 02-2173-2556
홈페이지 rusci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CIS학과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